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5·18! 데뷔포 쏜다

KIA 최희섭 오늘 잠실 두산전 선발 출전 가능성

서감독 "컨디션 철저히 체크후 결정" 신중한 반응

"빅초이 출격준비 끝났다."

'거포' 최희섭(28·KIA)이 빠르면 '5·18 민주항쟁 27주년' 기념일에 맞춰 한국프로야구 데뷔 첫 홈런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포지션은 1루수, 타순은 4번이다.

최희섭은 잠실에서 열리는 두산과의 3연전(18~20일)에서 한국 야구팬들에게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다.

18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하고, 늦어도 20일 일요일 경기에는 선발 1루수 겸 4번으로 출전하게 된다.

서정환 KIA 감독은 17일 "최희섭의 상태를 좀 더 봐야겠지만, 이번 잠실 3연전에서 1군 엔트리에 등록과 함께 경기에 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감독은 "시차적응은 끝났고, 타격감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또 수비 훈련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선발 출장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 감독은 그러나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최희섭의 체질상 러닝능력이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8일 오전까지는 마지막 컨디션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서 감독은 "팀 성적이 좋지 않아 하루빨리 최희섭을 내보내고 싶다. 하지만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무리수는 두지 않겠다"면서 "현 상태로선 18일 두산전 출장이 유력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몸 상태를 철저히 체크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당초 최희섭의 수원 현대전(15일~17일) 출전을 예고했다가, "준비가 덜 됐다"는 최희섭의 의견에 따라 일정을 미룬 서감독은 "본인의 의사도 매우 중요하다. (최)희섭이도 빨리 나가길 원하고 있지만, 만약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1~2일 정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KIA 수석코치도 "최종 결정은 18일 오전에 나올 것이다. 서 감독과 그 부분에 대해 마지막 의견을 조율중인데 18일부터 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일단 대타로 내보내 실전 감각을 키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거물급 선수인만큼 대타보다는 선발로 데뷔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최희섭 선발 출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두산은 주말 3연전 선발로 '원투펀치'인 리오스-랜들을 차례로 올려 KIA 타선을 무력화 시킨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최희섭에게는 오히려 '땡큐'가 될 수도 있다. '특급 용병'으로 평가받는 이들은 국내투수들처럼 변화구나 유인구보단 빠른 직구를 앞세워 정면승부를 벌이는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메이저리그를 5년간 경험한 최희섭으로선 오히려 대적하기가 손쉬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낙관적일 수는 없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실점 감각의 상실 때문이다.

지난 3월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이후 첫 실전경기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적응력을 보여줄 지는 이번 잠실구장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이저 리그 소식

출격

김병현 19일 '이적 신고'
서재응 20일 플로리다전

광주일고 1년 선후배로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김병현(28·플로리다 말린스)과 서재응(30·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19일과 20일 플로리다 지역 라이벌전에서 릴레이로 선발 출격한다.

콜로라도에서 플로리다로 이적한 김병현은 19일 오전 7시40분(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벌어지는 탬파베이와 인터리그 방문경기에 등판, 이적 신고를 한다.

서재응은 바통을 이어 받아 20일 오전 8시10분 플로리다전에 나서 상대 에이스 돈트렐 윌리스와 선발 대결을 펼친다.

지난달 16일 친정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올해 처음으로 선발 등판, 3이닝 동안 홈런 2방 포함 안타 4개를 맞고 5점을 내준 뒤 패전 투수가 됐던 김병현은 마이너리그 재활 등판에서 3경기 연속 호투를 펼친 여세를 몰아 새 팀에서 선발 첫 승을 올리겠다는 각오다.

김병현은 콜로라도에서 1승2패, 평균자책점 10.50을 기록했다. 악몽 같았던 콜로라도를 떠났고 왼손 엄지 타박상에서도 벗어났기에 기분은 상쾌한 편이다.

김병현은 탬파베이를 상대로 통산 8경기에 등판, 1승2세이브, 평균자책점 1.38을 거뒀다.

1승은 보스턴 시절이던 2004년 4월30일 펜웨이파크에서 선발 등판, 5이닝 동안 안타를 단 1개만 맞고 점수를 내주지 않으면서 올린 것이다.

한편 개인 통산 100번째 선발 등판이던 14일 토론토전에서 2승(3패)째를 수확한 서재응은 기세를 살려 시즌 첫 2연승 및 3승에 도전한다.

팀 타선의 부진이 걱정되지만 토론토전에서 7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솎아내며 완벽히 틀어 막은 자신감이 살아 있고 컨트롤도 좋아지고 있어 상승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서재응은 지난해까지 플로리다전에만 10번이나 선발로 마운드에 올라 워싱턴 내셔널스(13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상대했다. 그만큼 상대 타자들도 잘 안다. 성적도 4승3패, 평균자책점 2.52로 나쁘지 않아 3승 달성을 기대해 볼만 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프로야구 올스타 뽑아 주세요"

오늘부터 인터넷 등 통해 투표

7월17일로 예정된 올해 프로야구 '별들의 잔치'에 초청될 '올스타 베스트 10'을 뽑는 인기투표가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올스타전 출전 선수를 뽑는 투표를 18일부터 45일 간 전국 야구장과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군(삼성, 두산, SK, 롯데)과 서군(KIA, 현대, LG, 한화) 양팀의 포지션별 구단 추천 선수(총 80명) 중 최다득표 선수 10명씩 양팀을 합쳐 20명을 선정할 계획.

베스트 10과 별도로 동군의 선동열 삼성 감독과 서군의 김인식 한화 감독이 추천하는 10명을 합쳐 올스타 팀은 총 40명으로 꾸려진다.

지난 해 최다 득표자인 동군의 양준혁(삼성)은 11년 연속 올스타 베스트 10에 도전한다. 지금까지 최다 연속 베스트 10은 12년 연속 꿈의 무대에 섰던 이만수 SK 수석코치다.

KBO는 투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야구장 현장투표수를 입장관중 1인1장을 원칙으로 구단별로 경기당 5천장으로 제한했고,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투표 역시 '1인 1일 1차례'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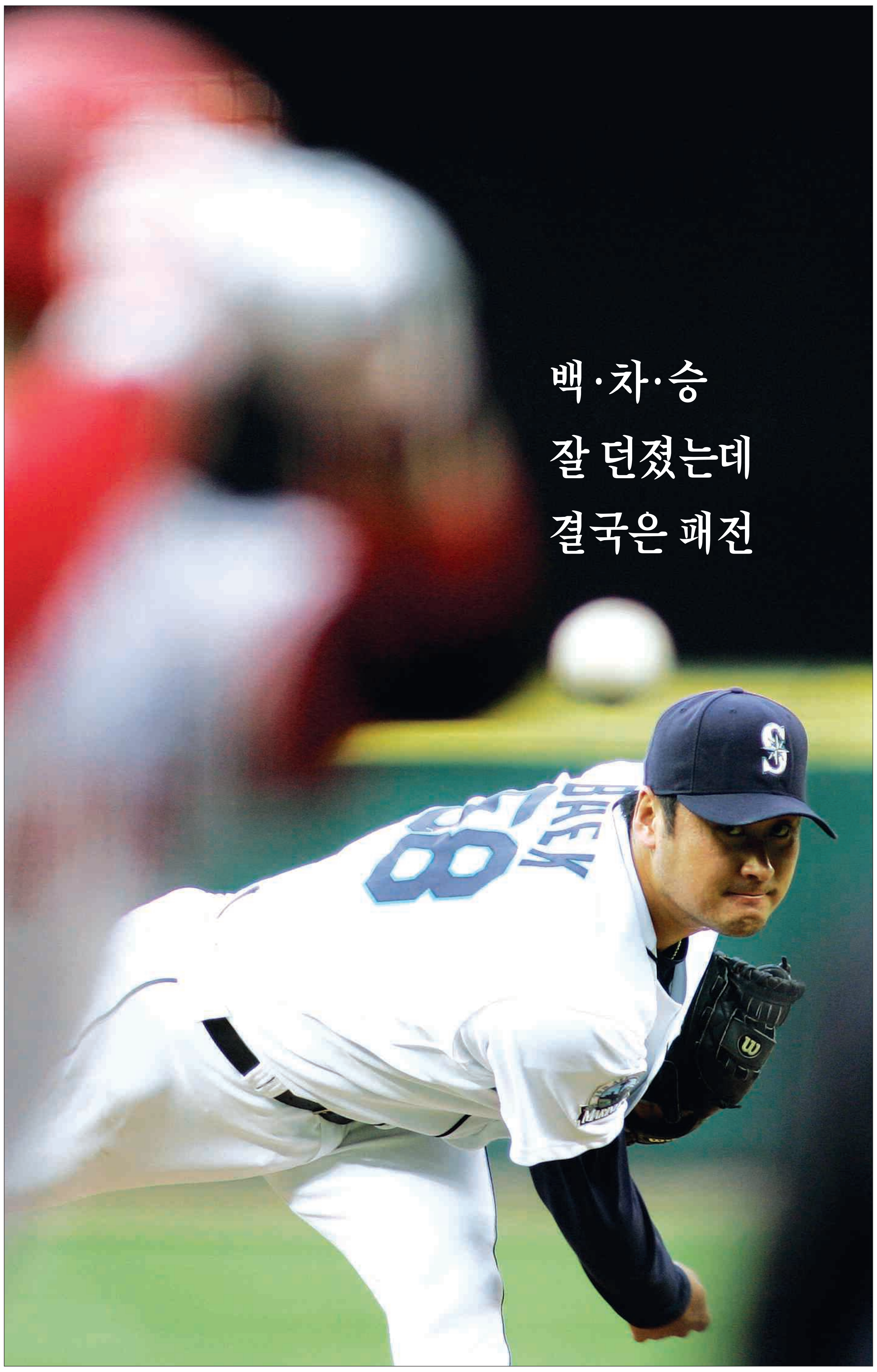
야구장을 찾지 못하는 팬들은 KBO와 메인 스폰서인 삼성전자, 각 구단, 6개 스포츠전문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올스타 투표 결과는 1주 단위로 매주 월요일 중간집계 결과가 발표된다.

한편 투표에 참가한 팬들에게는 투표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삼성 PAVV LCD TV와 디지털카메라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백·차·승 잘 던졌는데 결국은 패전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의 백차승이 17일 워싱턴주 시애틀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이날 6.1이닝 동안 6안타를 맞고 3실점한 백차승은 팀이 0-5로 져 패전투수가 됐다. /연합뉴스

위성미 스폰서 초청받아 삼성월드챔피언십 참가

위성미(18·나이키골프)가 세계 여자골프의 스타 20명만이 출전해 겨루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성월드챔피언십에 출전한다.

17일(이하 한국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위성미는 10월12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데저트의 빅혼골프장에서 열리는 삼성월드챔피언십에 스폰서 초청을 받았다. 이번이 네번째 출전.

위성미는 2004년 아마추어때 처음 출전해 20명중 공동 13위를 했고, 2005년에는 프로 전향후 이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러 4위의 성적을 냈다가 3라운드에서 오소플레이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실격됐다.

위성미는 작년에도 출전했으나 카트 도로 위에서 볼을 치다가 손목을 다치는 등 수난을 겪은 끝에 공동 17위에 그쳤다.

올해는 세계 랭킹 1위인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위성미의 라이벌인 모건 프레셀(미국)도 출전한다. 대회 첫날은 위성미의 생일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은희-박희영 한조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

이번 시즌 우승과 준우승의 갈림길에서 두 번이나 마주쳤던 지은희(21·캘러웨이)와 박희영(20·이수건설)이 또 만난다.

18일 경주 아너스골프장에서 개막하는 태영배 제21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지은희와 박희영은 동반 플레이를 한다. 둘은 오전 10시33분 1번홀에서 대만의 청야니와 티오프한다.

박희영은 휘닉스파크 클래식 마지막날인 4일 지은희와 챔피언조에 편성, 7타차로 출발해 1타차까지 좁히며 맹렬히 추격했으나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어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 마지막날인 12일에는 캐디의 실수로 지은희의 클럽이 자신의 백 속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때문에 2벌타를 받고 연장전까지 간 끝에 우승컵을 날리는 등 2주 연속 분루를 삼켰다.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상금 랭킹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둘을 같은 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대회 우승자인 신지애(19·하이마트)는 크리스티 커(미국), 아마추어 유소연(17·대원외고)과 오전 10시49분 1번홀에서 출발하고, 앞서 오전 10시41분에는 홍진주(24·SK)가 소피 구스타프손(스웨덴), 재미교포 킴벌리 킴(16)과 같은 홀에서 티오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